RESEARCH ARTICLE

한국어 연결어미 '-은데/는데' 연구 및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 제안

Hoàng Nguyên Phương[1], Huynh My Nhat

[1] Khoa Ngôn ngữ và Văn hóa phương Đông, Trường Đại học Ngoại ngữ -Tin học TP.HCM
[2] Trường Đại học AJOU (Hàn Quốc)

phuongnh@huflit.edu.vn, huynhmynhat131@gmail.com

논문 초록—본 연구는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체계화하고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와 기능, 제약 등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연결어미 '-은데/는데'가 갖는 기능과 의미가 다양하며 여러 유형의 상황에서 사용됨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그 기능과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활용 중 여러 오류가 생기는 것이 자주 보인다. 그러므로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후 학습자가 '-은데/는데'에 대한 오류를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적절한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연결어미 '-은데/는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교수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 것을 바탕으로 중·고급 단계를 연구 과제로 남긴다.

키워드—연경어미 '-은데/는데', 교수법 제안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며 초급 단계 한국어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결어미 '-은데/는데'는 사용빈도가 높은 기본 형태소로, 국어교육에서는 물론 한국어교육에서도 연결어미'-고'와 '-지만'등과 함께 초급 학습자의 교육 대상이 되는 연결어미이다 [1]. 또한, 연결어미 '-은데/는데'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쓰임이 다양하여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맥락 의미가 많게는 17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은데/는데'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실제 발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쉽지 않으며,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초급 과정에서부터 배우면서도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 원인이기도 하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집한 예문이다.

(1) ㄱ. 길이 **좁은데(√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ㄴ. 햇빛을 **받는데(√받아서)** 유리가 더욱 반짝거린다.

위 예문에서 초급 학습자는 '-은데/는데'와 '-아/어서'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여 이 둘을 서로 교환하였으나, 이 문장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한 배경이나 상황의 의미가 아니라 선행절과 후행절은 인과 관계로 연결된다. 즉, (1 ㄱ)에서는 차가 못 지나간 직접적인 이유를, (1 ㄴ)에서는 유리가 더욱 반짝거린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유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오류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일상 발화에서도 연결어미 '-은데/는데'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도 여전히 빈번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 의한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고 제시한다. 3 장에서는 '-은데/는데'의 사용제약과 유사한 연결어미를 서술한다. 4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오류를 분석한다. 그리고,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B. 선행 연구

연결어미 '-은데/는데'에 관한 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은데/는데'의 용법 분류, 의미 기능, 활용적 특징, 유사한 어미의 연결어미와의 차이,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나 사용 양상,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다.

'-은데/는데'의 용법 분류에 대한 연구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로 나눈 연구, 활용적 특징으로 나눈 연구, 기타 연구로 분류된다. '-은데/는데'은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초기에 '설명'을 의미범주로 밝힌 후 '상황'과 '배경'을 의미범주로 사용한 논의에는 이가동(1979), 김용석(1981), 남기심·고영근(1985)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로 나눈 연구로는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원(2005) 등 국어학 분야에서 논의된 것이 많다. 연결어미 '-는데/은데'가 문말에서 어떻게 실현되며 어떤 의미 기능을 갖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대립 관계, 배경 설명, 양보 설명, 이유 제시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2]. 연결어미 '-는데'의 형태 의미와 의미 기능을 구분하여, '-는데'의 형태 의미를 선행절의 명제 내용에 함의되어 있는 화자의 지식과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정의하였고, '-는데'의 의미 기능을 선행절이 후행절의 대비로 규정하였다 [1].

한편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고 그 의미 기능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선행절과 후행절에 나타난 의미 관계에 따라 '설명', '뜻밖의 일', '제의', '대조', '기대 어긋남' 5 가지로 새롭게 분류했다 [3]. 연결어미 '-는데'가 연결하는 두 절의 의미관계를 '시간, 이유, 대조, 상세화'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는데'의 의미와 기능을 구분하였고, '-는데'절은 후행절을 관련시키는 '도입 기능'이 있고, 맥락에 따라 '배경 또는 상황'의 중심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이어서 '-는데'의 용법을 가능한 한 일관성 있는 기준에 입각하여 체계적 으로 구분함에 있어 '대조, 이유, 양보, 설명, 동시, 도입' 6 개로 설정하였다 [6].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행절의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용법으로는 원인, 이유, 배경, 상황, 조건, 양보, 동시 등의 용법이 있고, 후행절을 기준으로 구분된 용법으로는 결과, 설명 등이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을 모두 고려한 용법에는 선후 관계, 대조, 대립 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 대한 명칭이 일관성이 없으며 연구마다 그 구분이 매우 광범위하여 의미에 해당하는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7, p.137].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연결어미 '-는데'를 지도할 때 지도의 내용과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8].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문법항목 '-는데'의 제시 방식과 관련한 기준 및 문제제기를 정리하여 '-는데'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보고 구체적인 연습 활동의 모형도 제시할 희망이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는데'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오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는데'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9].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통해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로 나누어 오류를 분석한 후에 공통적으로 '-아/어서', '-지만', '-고' 등의 연결어미 유형에 대해 기능 의미를 구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5]. '-는데'의 연결 기능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정형화된 문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유사한 의미의 연결어미의 비교 학습을 통해 어미 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연결어미 '-는데'의 다층적인 의미 해석 과정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는데'의 사용 실태와 문법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여 화자가 바라보는 사태와 화자의 지식이나 생각, 인식을 고려하되 학습의 과정을 단계화하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10].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결어미 '-은데/는데' 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와 기능의 선행 연구에는 서로 내용을 보조하며 기본 의미와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각 연구는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내용은 보충할 수도 있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본 연구는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C.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은데/는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초급 단계 한국어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는 '-은데/는데'를 '배경, 상황, 설명, 이유, 대조' 등 다양한 의미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에서 학습자들은 '-(으)니까, -아/어서, -지만' 등의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연결어미와 대치하는 오류를 쉽게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할 때 한국어 학습자가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며 초급 단계 한국어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초급 단계 한국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은데/는데'를 대상으로, 그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오류가 발생하는 실태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은데/는데'의 의미 기능

A. '-은데/는데'의 의미 기능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본 후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 특성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나누어 재분류하고자 한다. 특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 기본적인 적절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겠다.

<표 1> '-은데/는데'의 문장 내 기능(연결기능)에 따른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

연구자	의미 기능
최주희(2013)	대조, 근거 제시, 양보관계, 배경 설정, 상세 설명
김승희(2014)	대조 또는 대립, 상황, 배경, 이유, 정보, 환경, 도입, 설명
송대헌(2015)	대립 관계, 배경 설명, 양보 설명, 이유 제시
이재성(2016)	양보, 대립, 배경, 제시, 이유
유민애(2018)	배경, 상황, 설명, 대립
이지은(2018)	시간, 이유, 대조, 상세화
전정미(2018)	상황 제시 (설명, 뜻밖의 일, 제의, 대조, 기대 어긋남)
윤옥선·박동호 (2020)	대조, 이유, 양보, 설명, 동시, 도입
이원주(2022)	대조 및 반대, 이유, (선행절에 대한) 부가 설명, (후행절의) 이전 상황
양세희(2023)	배경, 상황, 설명, 대립, 이유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 기능이 실현되는 것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 기본적인 적절한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대립 관계, 배경 설명, 양보, 이유 제시의 의미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대립 관계

'대립 관계' 용법은 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시켜 주며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대립 관계'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독립성을 부여하며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서로 대등한 관계로 문장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상 변화가 없다 [2, p.72]. 다음의 예문에서 대립 관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2) ㄱ. 민호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데** 제인 씨는 잘 못 먹어요. [11, p. 139]

ㄴ. 안드레이 씨는 키가 **작은데** 여자 친구는 키가 커요.[11, p. 139]

(2') ㄱ. 제인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민호 씨는 잘 먹어요.

ㄴ. 여자 친구는 **키가 큰데** 여자 안드레이 씨는 키가 작아요.

위 예문 (2)과 (2')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문장을 교체해도 그 의미 변화가 없다. 따라서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은데/는데'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립 관계만을 나타냄으로써 전체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서정수(1994)에서는 '-는데/은데'는 선행절이 대립의 상황을 후행절에서 대립 내용을 서술한다고 설명한다 [13, p.172].

(3) ㄱ. 이 뮤지컬은 **재미있는데** 인기가 많지 않아요. [12, p.110]

ㄴ. 이 옷은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별로예요. [12, p.111]

(3') ㄱ. 인기가 **많지 않은데** 이 뮤지컬은 재미있어요.

ㄴ. 색깔이 **별로인데** 이 옷은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위 예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3')처럼 바꾸어 보면 의미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의미 차이를 볼 수 있다. (3 ㄱ)은 선행절의 '이 뮤지컬은 재미있다'와 후행절의 '인기가 많지 않다' 중 '인기가 많지 않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3'ㄱ)에서는 '이 뮤지컬은 재미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적 특징으로 화자가 관심을 두고 말하는 것이 선행절의 사건이 아니라 후행절의 사건이기 때문에 '-는데/은데'를 사용한 발화는 후행절의 사건을 말하는 데에 발화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은데/는데'로 연결된 문장의 대립 관계는 단순히 대등적으로 연결된 것이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꿔도 의미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삼으려 한다.

2. 배경 설명

'배경설명' 용법은 화자가 후행절의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 선행절에 먼저 적절한 배경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화자는 새롭거나 놀라운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도입부를 제시하고 그곳에 시간적 혹은 공간적인

배경 지식을 제시한다. 즉 화자는 후행절의 정보에 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행절을 가지고 관심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2, p.173]. '설명'은 선행절이 후행절에서 서술하려는 대상이나 사실을 이끌어 선행절에서 먼저 상황을 도입하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후행절에서 연관된 대상이나 사실을 서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p.287].

연결어미 '-은데/는데'가 쓰인 선행절이 후행절에서 서술하려고 대상을 이끌어 들이는 구실을 하며 선행절은 설명의 대상을 먼저 도입하고 그것을 후행절에서 서술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p.173].

배경 설정의 뜻으로 쓰이는 '-는데'의 기능은 청자가 후행절의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화자가 선행절에 그 배경을 설명하여 제시하는것이다 [8]. 다음의 예문에서 배경 설명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4)* ㄱ.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눈을 감아 버렸어요.

ㄴ.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ㄷ. 인사동에 **갔는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 '국립국어원 한국교수학습 샘타'에서 검색*

(4 ㄱ)에서는 '눈을 감아 버렸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도입부에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다'라는 정보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4 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내용 전개를 위해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라는 정보를 도입하고 있다. (4 ㄷ)에서도 인사동에서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인사동에 갔던 그때라는 시간적 배경을 선행절에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후행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선행절에 배경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양보

'양보' 용법은 '-는데'로 이루어진 선행절의 사태로부터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후행절에 오는 용법이다. 즉, 후행절에는 선행절에서 예상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 오는 용법이다 [6, p.304]. '양보 설명'이란 선행절에 의해서 예상되는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을 후행절에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선행절의 명제에 대한 내용을 양보하고서도 후행절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진술한다는 것이며 선행절의 사태로 인해 후행절의 사태가 논리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의 사태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후행절에 나타나는 것이다 [2, p.174]. '-은데/는데'의 '양보' 기능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5)[1] ㄱ.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다.

ㄴ. 점심 때 식사를 많이 **했는데** 왜 이리 배고프지?

(5 ㄱ)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앞선 사실로 이루어진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이고 화자와 청자가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험을 못 봤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 어긋나는 상황이다. (5 ㄴ)도 마찬가지로 점심 때 식사를 많이 하면 배가 불러야 하는데 아직 배가 고프다는 것은 예상에서 어긋난 사건이 된다. 이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상황들이 직접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예상과 기대하는 것이 선행절에 반영이 되어 그와 어긋난 사태가 후행절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양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화자의 인식이 개입되어야 하고 둘째, 대립 관계의 문장이 사실적인 바탕으로 한다면 양보 관계는 비사실적인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에 반대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미상 조건을 포함하는 진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p.175].

4. 이유

'이유' 기능은 후행절에서 상대방에게 지시, 명령, 제시, 제안을 위해 선행절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p.175]. 후행절의 명제가 지시, 명령, 제시라는 특성을 갖다보니 후행절에 오는 종결어미 사용에도 자연스럽게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후행절에 오는 종결어미는 '-을까요?', '-읍시다', '-으세요' 등의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제한된다 [8, p.143]. 다음은 '-은데/는데'의 '이유' 용법의 예문이다.

(6) ㄱ. 맛이 좀 **이상한데** 버리세요. [13, p.99]

ㄴ.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조금 후에 출발합시다. [13, p.99]

ㄷ. 할 일이 **많은데** 도와주세요. [13, p.99]

(6 ㄱ)에서는 '맛이 이상하다'는 사실로 '버리세요'라고 제안한다. 또한 (6 ㄴ)은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선행절의 근거로 후행절에서 '조금 후에 출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6 ㄷ)에서는 '할 일이 많다'라는 근거로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유 제시로 쓰인 연결어미 '-은데/는데'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니까'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는데'는 선행절은 사태를 지향하고 '-니까'는 후행절 사태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2, p.176]. 결국 '-은데/는데'는 선행절의 사태에 청자의 주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니까'는 선행절의 사태를 상황으로 제시하지만 화자의 생각은 벌써 후행절 사태에 관심이 가 있다는 의미이다. '-는데'는 청자에게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니까'에 비해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8, p.143].

III. '-은데/는데'의 제약과 유사한 문법

A. '-은데/는데'의 제약

연결어미'-은데/는데'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데도 제약 사항이 있다.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며, 2 장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사용 제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주희(2013)에서는 연결어미'-은데/는데'의 사용 제약은 다음과 같다.

<표 2>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사용 제약

제약	설명
후행절에 오는 기대 불일치 상황	(7)ㄱ.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알리 씨는 열심히 듣습니다. ㄴ. *땀을 많이 흘리는데 목욕을 합니다. ㄷ. *밤인데 잠을 잡니다. (7)의 예문들이 어색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는데'의 의미를 배경 또는 이유로만 파악하고 그와 비슷한 연결어미로 대치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또한 후행절에 기대 불일치 상황이 온다는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경 내 대상의	(8)ㄱ. *그 식당의 반찬이 스무 가지가 넘는데 한정식을 시켰다.

초점화 범위	ㄴ. 한정식을 시켰는데 그 식당의 반찬이 스무 가지가 넘었다. (8 ㄱ)은 '-는데'의 선행절에 오는 배경과 후행절에 오는 대상의 범위를 제대로 상정하지 못했거나 배경과 대상을 상정하였더라도 배경과 대상이 올 수 있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만들어낸 오류로 보인다. 선행절에 무게중심이 명확히 가게 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선행절에 '-는데'보다 선행절의 그 주기능을 명확히 드러내 줄 수 있는 다른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8, p.154].
배경과 대상의 관련성의 정도	(9) ㄱ. *학생인데 공부한다. ㄴ. *겨울인데 춥다. (10)ㄱ. *비가 오는데 공부를 안 한다. ㄴ. *화요일인데 비가 온다. (9), (10)의 예문들이 어색한 이유는 배경과 대상과의 거리가 완전히 일치하거나 맥락으로 선행절이 후행절의 배경이 되지 못하고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연결어미'-은데/는데'의 기능은 '대조', '시간', '이유', '상세화' 네 가지로 나눈 후에 '-아/어서', '-을 때', '-고', '-지만' 등 같은 기능이 유사한 문법과 비교하면 사용 제약을 제시하였다 [4]. 선행 연구에 제시된 사용 제약을 살펴본 후 연결어미'-은데/는데'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용상 제약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용상 제약을 잘 파악하면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결어미'-은데/는데'의 기능은 '대조', '시간', '이유', '상세화' 네 가지로 나눈 후에 '-아/어서', '-을 때', '-고', '-지만' 등 같은 기능이 유사한 문법과 비교하면 사용 제약을 제시하였다 [4]. 선행 연구에 제시된 사용 제약을 살펴본 후 연결어미'-은데/는데'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용상 제약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용상 제약을 잘 파악하면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은데/는데'와 기능이 유사한 문법

<표 4>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은데/는데'와 기능이 유사한 문법

교재 / 문법	연세 한국어 (1-1, 1-2, 2-1, 2-2)	경희 한국어 문법 (1, 2)	비타민 한국어 (1, 2)
'-아/어서'(1)	•'-아/어서'는 동사 어간에 붙어 선행절이 후행절의 일반적인 이유나 원인임을 나타낸다. •'-아/어서'는 동사에 시제 표현이 붙지 않는다. 그리고 뒤 문장(절)에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사용할 수 없다. •모음 'ㅏ', 'ㅗ' 뒤에는 '-아서'가 붙고 그 외 모음 뒤에는 '-어서'가 붙는다. '하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서'가 붙어 '하여서'가 되고 이것이 줄어들어 '해서'가 된다. 예시: ㄱ. 비가 와서 우산을 씁니다. [14, p.134] ㄴ. 시간이 없어서 택시를 탔어요. [15, p.212] ㄷ. 피곤해서 일찍 집에 갔습니다. [16, p.239]		
'-아/어서'(2)	•'-아/어서'는 동작동사 어간에 붙어 어떤 일이나 동작이 시간의 순서와 차례에 따라 일어남을 말할 때 사용한다. •'-아/어서'는 동작동사에 시제 표현이 붙지 않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다. '-고'와 달리 선행절의 일어나 동작이 후행절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예시: ㄱ. 친구를 만나서 자전거를 탈 거예요. [11, p.47] 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요. [14, p.149] ㄷ.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16, p.231]	
'-(으)니까'(1)	•'-(으)니까'는 동사 어간에 붙어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임을 나타낸다. 보통 화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나 화자의 약속, 제안, 명령에 대한 이유를 나타낸다. •'-(으)니까'는 동사에 시제 표현이 붙을 수 있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으)니까'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니까'가 붙는다. 예시: ㄱ.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을 합시다. [11, p.35] ㄴ.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14, p.179] ㄷ.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세요. [16, p.246]	
'-(으)니까'(2)	•'-(으)니까'는 동작동사에 붙어 동작을 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한다. •'-(으)니까' 앞에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받침이 있는 동작동사에는 '-(으)니까'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니까'가 붙는다. 예시: ㄱ. 교실에 들어가니까 친구가 있었어요. [12, p.174] ㄴ. 김치를 먹어 보니까 제 생각보다 맵지 않아요.[13, p.118]	X
'-지만'	•'-지만'은 동사 어간에 붙어 두 문장(절)의 내용이 대조됨을 나타낸다. •'-지만'은 동사에 시제 표현이 붙을 수 있다. 예시: ㄱ. 비빔밥은 조금 맵지만 맛있어요. [14, p.126] ㄴ. 이 옷은 비싸지만 예뻐요. [15, p.221] ㄷ.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아요. [16, p.196]	

<표 4>에서는 '-은데/는데'와 기능이 유사한 문법을 제시했고 또한 <표 4>를 통해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3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IV.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교수법

A. 초급 단계 베트남인 학습자의 연결어미'-은데/는데' 오류 실태

초급 단계 한국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사용할 때 어떤 오류를 발생할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학과 2 학년 1 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이틀동안

(2023.11.16~17)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 총 15 개 중에서 시제와 '-아/어서', '(으)니까', '-지만', 부정표현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상황 별로 분석했다.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55 개의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본 연구는 학습자의 연결어미 '-은데/는데' 사용 현황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제

연결어미 '-은데/는데'는 과거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을 수반해야 하나, 이를 어긴 사례들이다. 다만, 연결어미 '-은데/는데'는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사적 제약이 많지 않아 시제 제약에 대한 오류율이 낮다.

(11) ㄱ.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좋아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합니다. <질문 1>

ㄴ. 가: 도서 대출증을 안 가지고 **오는데(√왔는데)** 어떻게 하지요? <질문 2>

나: 책을 빌리려면 도서 대출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 예문 (11 ㄱ)과 같이 '어렸을 때'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비문을 생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1) 경우에는 학습자가 절반 이상이 정답을 선택했다. (11 ㄱ)는 '좋아했는데'라는 응답은 67,3%이며, (11 ㄴ)는 '왔는데'라는 응답은 50,9%이다.

2. '-은데/는데'와 '-아/어서'

연결어미 '-은데/는데'는 유사 의미 혼동 오류 유형 중에서 '이유·원인'을 표현하거나 '시간'을 표현하는 연결어미 '-아/어서'와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2) ㄱ. 돈이 **없어서(√없는데)** 좀 빌려 주세요. <질문 3>

ㄴ. 선물을 **샀는데(√사서)** 생일 파티에 갔어요. <질문 10>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 ㄱ)에서는 '없는데'라는 응답은 54,5%이며, '없어서'라는 응답은 34,5%이다. (12 ㄴ)에서는 '샀는데'라는 응답은 40%이며, '사서'라는 응답은 38,2%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절반 이상이 정답을 선택했지만, 많은 학습자가 연결어미 '아/어서'에 대한 사용법을 잘 파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2 ㄱ)에서는 학습자의 절반 이상이 정답을 선택하는데 (12 ㄴ)에서는 학습자의 틀린 응답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하는 '-은데/는데'의 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기존에 학습한 연결어미 '-아/어서'와 혼동하여 일으킨 오류로 볼 수 있다.

위 예문(12 ㄱ)에서는 학습자들은 '-은데/는데'의 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뿐만 아니라 '-아/어서'에 대해도 이해 부족을 볼 수 있다. '-아/어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개입시키지 않고 결과가 일어난 원인이나 이유를 하나의 사실로서 단순하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뒤 절에 명령의 '(으)세요', 제안이나 권유의 '(으)ㅂ시다', '-(으)ㄹ까요? 사용이 불가능하다 [24, '-어서']. 학습자들이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도 (12 ㄱ)에서는 후행절에 '빌려 주세요'라는 명령인데 많은 학습자가 연결어미 '-아/어서'를 선택했다.

위 예문(12 ㄴ)는 '시간(순서)' 관계 연결어미와 '-은데/는데'를 대치한 오류다. (12 ㄴ)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서'의 의미로 이어 주는 연결어미 -아/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는데'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 연결어미들은

시간적으로 선행절의 행위가 먼저 일어난 후에 후행절의 행위가 일어나는 문장을 이어 주는 것으로, (12 ㄴ)에서는 선물을 사고 나서 그 후에 생일 파티에 가는 행위가 이어지므로 '-는데'가 아니라 '순서'의 의미로 이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

3. '-은데/는데'와 '-(으)니까'

(13) ㄱ. 가: 내일 같이 등산을 갈까요?

나: 내일은 수업이 **있는데(√있으니까)** 일요일에 갑시다. <질문 4>

ㄴ. 가방을 열어 **보는데(√보니까)** 지갑이 없었습니다. <질문 8>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 ㄱ)에서는 '있으니까'라는 응답은 47,3%이며, '있는데'라는 응답은 30,9%이다. (13 ㄴ)에서는 '보니까'라는 응답은 27,3%이며, '보는데'라는 응답은 49,1%이다. 연결어미 '-(으)니까'의 이유 용법은 뒤 절에는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구나 명령문 청유문이 올 수 있다 [24, '-(으)니까']. 이에 따라 (13 ㄱ)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자가 연결어미 '-(으)니까' 기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점은 학습자의 정답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비율은 절반을 아직 달하지 못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보면 (13 ㄴ)에서는 발견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의 예문이다. 발견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결어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으)니까'를 써야 할 자리에 학습자가 '-은데/는데'를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으)니까'와 연결어미 '-은데/는데'에 대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은데/는데'와 '-지만'

이러한 오류 현상의 원인으로는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 등에서 '-는데'의 또 다른 의미로 'but'으로 설명함으로써 '-는데'와 '-지만'을 동일 한 의미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는데'는 '-지만'과 달리 후행절에 앞서 그 배경 또는 상황이 유지된 채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립함으로써 후행절을 부각시킨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립한다는 것은 정반대의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선행절에서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후행절에 일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5, p.556].

(14) ㄱ.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못 봤어요.<질문 12>

ㄴ. 집이 좀 **작지만(√작은데)** 깨끗해서 좋아요. <질문 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4 ㄱ)에서는 '했지만'라는 응답은 60%이며, '했는데'라는 응답은 34,5%이다. (14 ㄴ)에서는 '작지만'라는 응답은 54,5%이며, '작은데'라는 응답은 34,5%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14)에서는 학습자의 틀린 답을 선택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 이에 대부분 학습자들이 '-은데/는데'와 '-지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예문 (14)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바꾸면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립·대조'의 연결어미 '-지만'이 아니라 '-은데/는데'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의 '-은데/는데'는 중심 의미인 '배경 또는 상황'이 유지된 채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립하는 부차 의미가 추가된다. 단순히 대조하는 '-지만'과 달리 '-은데/는데'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후행절이 더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용함을 교육해야 한다.

5. 보조 용언 '않다' ('-지 않다')

(15) 요즘 고기를 별로 먹고 싶지 **<u>않았는데(√않은데)</u>** 이 식당의 고기가 맛있네요.<질문 15>

조사 결과를 보면 (15)에서는 학습자의 정답을 선택하는 비율은 52,7%로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 예문(15)와 같이 부정형이 사용된 경우에는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올바른 활용형을 선택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시키고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이형태가 결합해야 함을 명확하게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B. 연결어미'-은데/는데' 교수법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연결어미 '-은데/는데'의 의미 기능과 제약, 그리고 초급 단계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최소화된 효과적인 연결어미 '-은데/는데' 교수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도입 단계

학습 목표를 도입하여 학습자를 동기화시키는 단계이다. '-은데/는데' 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맥락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맥락을 통해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16) 민아: 표정이 왜 그래요?

현우: 내일 발표를 하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내일 발표를 하는데"가 후행절의 상황 설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2. 제시, 설명 단계

제시 단계는 학습 목표가 되는 문법 항목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다. 구조적인 연습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u>제시와 설명 1</u>: 배경

"내일 발표를 하는데"는 뒤에 오는 문장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라는 말을 함으로써 현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의 **배경**을 아려 주는 것이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하는 말이다. 그런데 '하다'와 같은 동작동사이면 'AVst 는데'를 쓰고, 상태동사와 쓸 때는 'DVst(으)ㄴ데'를 쓰고 그리고 명사와 쓸 때는 'N 인데'를 쓴다.

① 동사의 어미 활용을 위해서 형태 연습을 한다 (형태 변화가 있는 경우).

<예: 빈칸을 채우십시오>

동작동사	상태동사		명사
-는데	-은데	-ㄴ데	-인데
먹다	많다	크다	학생
기다리다	좋다	예쁘다	생일
*만들다	*멋있다	*덥다	

*주의 사항:

- 상태동사에는 'ㄴ/은데' 붙는데 '있다, 없다'로 끝나는 상태동사에는 '-는데'가 붙는다.
- 'ㄴ/은/는데'와 불규칙 동사 규칙대로 활용형 선택 (예: 만드는데, 더운데)
- 부정형: 품사에 따라 올바른 활용형 선택 (-고 싶지 않은데)

② 예문은 본문과 관련 있는 것,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심으로 어휘와 문장 내용으로 접근한다.

(17) 강사 6 시입니다/퇴근합시다.
학습자 6 시 인데 퇴근합시다.

(18) 강사 주말마다 베드민턴을 치다/전신 운동이 되다.
학습자 주말마다 베드민턴을 치는데 전신 운동이 돼요.

(19) 강사 원피스를 샀다/참 예쁘다.

학습자 원피스를 샀는데 참 예뻐요.

(20) 강사 날이 덥다/아스크림을 먹을까?

학습자 날이 더운데 아스크림을 먹을까?

제시와 설명 2: 대조

'-은데/는데'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난다. 선행문과 후행문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할 때 쓰는 경우는 대조하는 뜻이 된다.

(21) 강사 예전에는 탄산음료를 자주 마셨는데 요즘에는 물만 마셔요.
(이 문장에서 화자는 "요즘 물만 마셔요"를 말하고 싶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선행문을 말하는 것이다.)

(22) 강사 저는 한국말을 잘 해요. 제 동생은 일본어를 잘 해요.

학습자 저는 한국말을 잘 하는데 제 동생은 일본어를 잘 해요.

(23) 강사 일은 많아요. 월급은 적어요.

학습자 일은 많은데 월급은 적어요.

(24) 강사 대도시 교통은 복잡하다/시골은 한가하다.

학습자 대도시 교통은 복잡한데 시골은 한가한다?

제시와 설명 3: 이유

선행문 원이이나 근거로 후행문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25) 강사 날이 덥다/아스크림을 먹을까?

학습자 날이 더운데 아스크림을 먹을까?

(26) 강사 공연시간이 곧 시작하겠다./전화 진동으로 바꾸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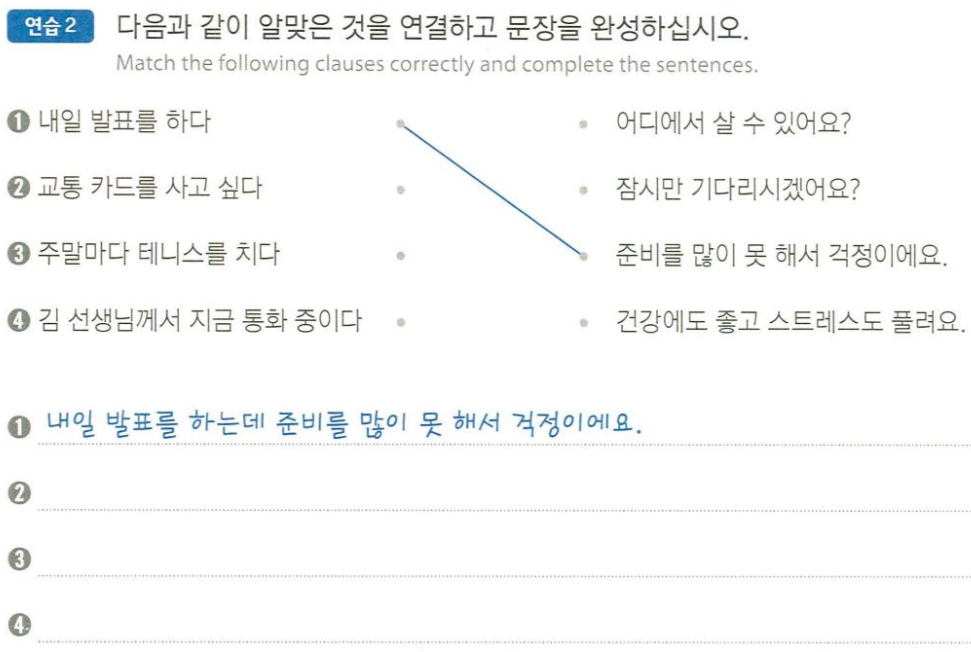
학습자 공연시간이 곧 시작하는데 전화 진동으로 바꾸십시오.

제시와 설명 4: 유사한 문법을 비교 [2 장, D 절 및 설문지 참고]

3. 연습 단계

제시 및 설명 단계에서 이해한 규칙을 다양한 연습을 통해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제시 단계에서 이루어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ㄴ/은/는데'연습 시 많이 활용되는 연습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형태 연습**: 형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연습으로 초급에서 많이 사용된다 (설명 1 의 <보기>).
- **연결 연습**: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습이다. [12, p. 108]



연습 2 다음과 같이 알맞은 것을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Match the following clauses correctly and complete the sentences.

❶ 내일 발표를 하다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❷ 교통 카드를 사고 싶다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❸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다	준비를 많이 못 해서 걱정이에요.
❹ 김 선생님께서 지금 통화 중이다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❶ 내일 발표를 하는데 준비를 많이 못 해서 걱정이에요.
❷
❸
❹

- **완성연습**: 문형이 사용된 문장을 완전하게 끝맺는 연습이다. 선행문이나 후행문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끝맺도록 이해도를 측정한다. [12, p. 109, 111]

연습 3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Complete the sentences as shown in the example be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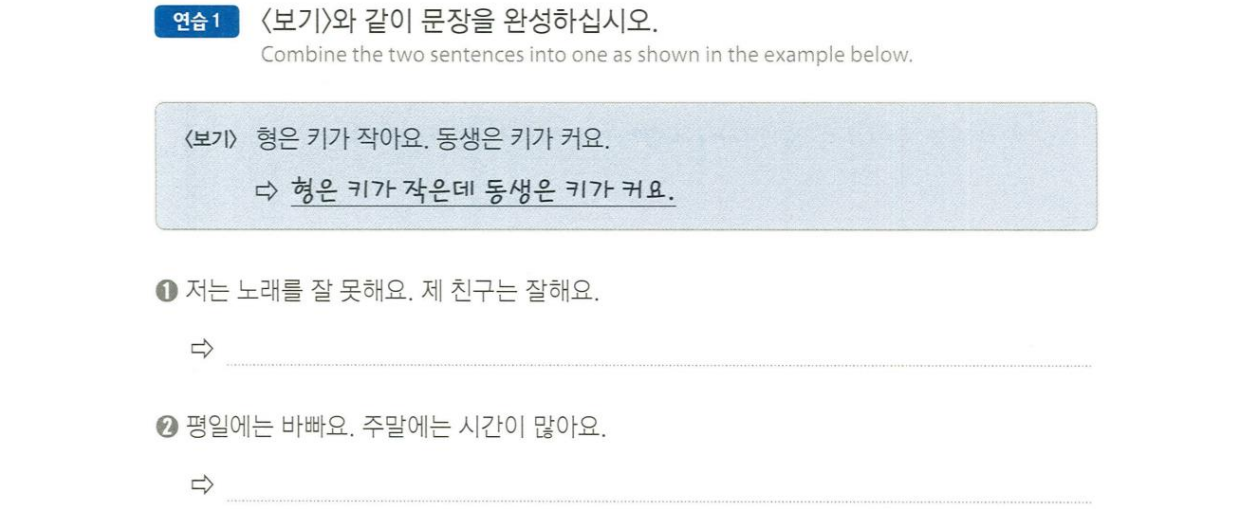
〈보기〉 밥을 먹고 있는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❶ _____ 아주 재미있었어요.
❷ _____ 힘들었어요.

연습 4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Complete the sentences as shown in the example below.

〈보기〉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커요.

❶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_____
❷ 옷장에 옷이 많은데 _____



연습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Combine the two sentences into one as shown in the example below.

〈보기〉 형은 키가 작아요. 동생은 키가 커요.
⇨ 형은 키가 작은데 동생은 키가 커요.

❶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제 친구는 잘해요.
⇨

❷ 평일에는 바빠요. 주말에는 시간이 많아요.
⇨

- **응답연습**: 교사나 동료 학습자가 질문을 할 때 문법유형을 활용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는 방식이다. 교채연습 후에 습득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도록 한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 설명해준다.

<예: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
가: ……는데,은데/ㄴ데 ……으세요/세요.
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연습: 상황에 맞는 대답이나 질문을 하도록 하는 연습이다.

<예: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
가:.....
나: 편의점에서 우산을 삽시다.

- **맞는 표현선택 연습**: 주관식으로 비슷한 문장을 제시하여 맞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습이다. (같은 문장인데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다름)

<예: 맞는 것에 O 표 하십시오. >
- 피곤한데 [일찍 집에 갑니다. ( )
  일찍 집에 갑시다. ( )
- 잘 어울리는데 [입어 보세요. ( )
  입어 봤어요. ( )

4. 사용 단계

제시와 연습 단계를 통해 학습한 언어 기술을 의미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의사소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어휘, 문법 형태 등을 활용해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화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종합해서 연습을 시킨다.

- **역할극**: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대화를 해 보는 활동이며 모든 연습이 끝나고 문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때의 연습이다. '-는데'의 여러 의미는 시간을 두고 다룰 수도 있다.
  <예: 동료 학습자들하고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십시오. >
- **정보 교환하기**: 학습자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배운 문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급 단계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연결어미 '-은데/는데'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그 의미 기능 및 사용 제약을 살펴보고 재분류하였다. 그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교재에서 '-은데/는데'의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재마다 '-은데/는데'의 주요 기능에 대한 기술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 기술 내용과 제시된 용례가 충분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은데/는데'의 다양한 기능 중 핵심 기능이 '대립 관계', '배경 설명', '양보'와 '이유'라고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은데/는데'의 사용 제약 사항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의 결과에 나타낸 오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자가 '-은데/는데'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기 위해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은 더 많은 교재를 참고하지 못해서 초급 단계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교재를 추천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본 연구에 제시된 내용과 교수법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연결어미'-은데/는데'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향후 이 연구의 바탕으로 연결어미'-은데/는데' 중·고급 단계를 연구 과제로 남긴다.

VI. 참고 문헌

[1] 이재성(2016), 「연결어미 '-는데'의 형태 의미와 의미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255-278.

[2] 송대헌(2015),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은데'의 의미와 담화 기능 연구」, 국제어문 66집, 국제어문학회, pp.167-191.

[3] 전정미 (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기능 연구」, 우리말연구 49 집, 우리말학회·한국어문화교육학회, pp.281-311.

[4] 이지은(201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범언어적 절 연결 의미 유형에 기초한 '-는데' 연구」, 이중언어학 71, 이중언어학회, pp.249-287.

[5] 유민애 (2018),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는데'의 오류 원인 분석」, 국제어문, 79 권, 국제어문학회, pp.531-562.

[6] 윤옥선·박동호 (2020),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용법과 특징 연구」, 56 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285-319.

[7] 이원주(2022), 「문어와 구어에서의 '-(으)ㄴ/는데' 기능 및 교육방안 연구 - TOPIKⅡ와 대학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제32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pp.133~159.

[8] 최주희(2013), 「한국어 교육을 위한 "-는데"의 핵심 기능과 사용상의 제약 고찰」, 영주어문25, 영주어문학회, pp.133-163.

[9] 김승희(2014), 「한국어 교육용 문법항목의 제시 방안에 대하여: 연결어미 '-는데'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 반교어문학회, pp.103-137.

[10] 양세희 (2023), 「문법 능력 신장을 위한 연결어미 '-는데' 교육 내용 연구」, 문법교육, 48권, 한국문법교육학회, pp.133-164.

[11]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7), 비타민 한국어 2, 다락원 출판사.

[12] 경희대학교(2014), 「경회 한국어 문법 2」, 도서출판 하우.

[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한국어 2-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14] 경희대학교(2014), 「경회 한국어 문법 1」, 도서출판 하우.

[15]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7), 비타민 한국어 1, 다락원 출판사.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한국어 1-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NGHIÊN CỨU VĨ TỐ LIÊN KẾT CÂU TIẾNG HÀN '-은데/는데' VÀ ĐỀ XUẤT PHƯƠNG ÁN GIẢNG DẠY Ở TRÌNH ĐỘ SƠ CẤP

Hoàng Nguyên Phương, Huỳnh Mỹ Nhật

TÓM TẮT—Nghiên cứu này nhằm hệ thống lại vĩ tố liên kết câu '-은데/는데' và đưa ra đề xuất về phương án giảng dạy cho người học tiếng Hàn trình độ sơ cấp. Trước tiên, thông qua các nghiên cứu trước, ý nghĩa và chức năng, mặt hạn chế của vĩ tố liên kết câu '-은데/는데' được sắp xếp lại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Vĩ tố liên kết câu có nhiều chức năng và ý nghĩa đa dạng, sử dụng được ở nhiều tình huống nên ta thường thấy việc người học không thể hiểu đúng chức năng và ý nghĩa dẫn đến việc mắc lỗi sai trong khi sử dụng. Vì lí do đó, nghiên cứu đã tiến hành khảo sát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học tiếng Hàn trình độ sơ cấp. Sau khi phân tích kết quả khảo sát, bài viết đã đưa ra phương án dạy phù hợp để có thể giải quyết được những lỗi sai liên quan đến vĩ tố liên kết câu '-은데/는데'. Kết quả nghiên cứu có ý nghĩa ở mặt vừa tạo được kiến thức tổng thể vừa đề xuất được phương án giảng dạy vĩ tố liên kết câu '-은데/는데' cho trình độ sơ cấp. Đồng thời nghiên cứu này cũng là tiền đề để nghiên cứu vĩ tố liên kết câu '-은데/는데' cho trình độ Trung – Cao cấp trong tương lai.

Từ khóa—vĩ tố liên kết câu '-은데/는데', phương án giảng dạy,

Hoàng Nguyên Phương
호치민시 외국어 정보대학교(HUFLIT) 졸업, 2008 년부터 동방학부 한국어 전임 강사, 경영학박사 (인사관리).
연구분야: 한국어교육, 인사관리

Huỳnh Mỹ Nhật
호치민시 외국어 정보대학교(HUFLIT) 졸업, 한국 아주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
연구분야: 한국어, 한국어교육